





門中の 대표적인 賢祖의  
하부으로 草溪<sup>초계</sup> 쪽의 8세孙  
의 贊賓을 끊는다. 그는  
朝의 운이 다하자 麗朝에  
대한 忠節을 지켜 杜門洞  
에 은신했다가 불태워 죽  
임을 당했다. 杜門洞七十  
二賢中 표절실 제50위 정  
절반 제2위로 杜門洞書院  
과 경남 昌原郡 鎮田面白岩  
里 誠久祠에 공享되었다.  
또한 그의 아들이 卡南  
龍은 자가 震卿号가 静庵이  
다. 공미황 6년에 등과 냐  
슬이 翰林門下侍郎에 이르  
렀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龍開城尹을 비롯해 漢城判尹  
이 되었다.  
**卡南龍의 玄孫이며 延  
安公派祖 純의 曾孫인  
卜雋은 折衝將軍、僉知中  
樞府事로 있을 때 연산군  
12년(1506年) 柳順汀  
朴元宗등과 더불어 晉城大  
君을 임금으로 모시는 中  
宗反正를 결행 奮義靖國功  
臣의 錄眷을 받고 五衛將  
開城尹을 비롯해 漢城判尹  
을 거쳐 資憲大夫、兵曹判  
書에 올랐고 草溪君에 봉  
洞에 있는 忠敬祠에 位牌  
해졌다. 論号는 忠毅公이  
며 不桃廟의 은전을 받았  
다. 現在 清原郡 加德面柿  
洞에 올랐고 忠敬祠에 봉  
洞에 있는 忠敬祠에 位牌  
를 모셔놓고 祭祀(陰四月  
十一日)를 모시고 있다.  
또한 卡南龍의 네째 아  
들 卡孝文도 長派에서 중  
추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藝文提學을 지냈다.  
명을 받들어 『國朝五禮儀  
日本에도 다녀온 등교 외교  
관으로서 한때 활약했으며  
司成이 된 그는 『通信使』로  
直提學을 거쳐 世宗 때 大  
司成이 된 그는 『通信使』로  
다. 태종 14년 문과에 급제  
되었고 忠敬祠에 位牌  
洞에 있는 忠敬祠에 位牌  
를 모셔놓고 祭祀(陰四月  
十一日)를 모시고 있다.  
『國朝五禮儀』  
金槐들과 함께 新註無寃  
錄을 편찬했다.  
이 책은 관리들을 위한 행  
정지침서로 당시의 刑·政  
의 규범을 마련했고 末年  
에 이르러 崔致雲、李世衡、  
관들에 공정한 사법준용  
의 길잡이 노릇을 했다.**

# 顯祖의 遺業과 略史

忠·孝·節의 本分을 重하게

카이에 벼슬이吏曹參判이  
그의 증손인 卞溫은 중종 때 同福懸監을 지내면서湖南에 이주한 척 卞氏인 물로 이무렵부터 국가공신이 속 배출되는 등 개화 기를 맞이하였다.  
卞孝敬의 六代孫 卞國幹이 一五四三年 一七세의 나이로 武科에 급제하여 兵水使를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쓰아리고 백성을 편하게 하였다. 하여 그의 功을 길이 전하려는 鐵碑가 세워졌다고 한다. 晚年에는 全羅右使로 諺中에서 죽으니 朝廷에서 禮官을 파견 禮葬하였다.  
壬辰亂 때의 병을 일으켜 父子가 함께 구국에 애장했던 卞延壽 卞孝도卞 죄로 卞敬의 후예다.  
文武兼全의 이를 卞延壽는 일찌이 武科에 급제하여 訓練主簿가 되다가 千辰亂이 일어나자 金孝誠 등과 의병을 모이고 맘아들卞과 함께 李舜臣의 휘하에 들어갔다.  
玉浦海戰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뒤에 永靖唐浦싸움에서 父子가 동시에 순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卞崇의 妻安東金氏가 七日間 식음을 전폐하여 父子返葬 후 죽었다.卞延壽는 宣武原從販处에 錄卷되었고 아들 卞崇은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또한 卞崇의 忠과 아들卞崇의 孝 卞崇의 妻安東金氏의 烈은 세상에 드문一家三節이라 하여 三綱閭의旌表가 내려졌다.  
한편 密陽쪽의 대표적인 인물로 李成桂를 王으로 추대 국공신이 된 卞玉과 시문으로 이름이 높은 그의 두 아들 卞仲良、卞季良을 꼽는다.



誠久祠  
鹿南昌原郡鎮田面日岩里

이 기사는 大邱宗親會名單에 수록된  
것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而以「黑」為主，「黑」為主者二家，「黑」為主者一家。

을이나 구국에 앞장섰던 조선조 卡門의 忠義 정신을 이었다. 卡門中은 孝道로도 이름이 났다. 그 중 卡門이 자랑하는 대표적 인물로 十柏陰 十景福을 꼽는다. 평생 어머니를 풍향하기 위해 학식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壬辰亂이 일어나 五세의 고령으로 八 十尚東도 전병까지 감을 내려졌다.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경전에도 해단길에 올랐다. 그의 季行이 조정에 알려져 旌에 모았던 그는 長派 提學 박해 士林의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그는 十孝文의 후손으로 十孝公에 清原의 菊溪書院에 부되었다.

한편 延安公 十純의 아 둘째 친부는 十尚東도 전병까지 감을 내려졌다.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경전에도 해단길에 올랐다. 그의 季行이 조정에 알려져 旌에 모았던 그는 長派 提學 박해 士林의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그는 十孝文의 후손으로 十孝公에 清原의 菊溪書院에 부되었다.

또한 平川 卡玉希의 아 둘째 친부는 十尚東도 전병까지 감을 내려졌다.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경전에도 해단길에 올랐다. 그의 季行이 조정에 알려져 旌에 모았던 그는 長派 提學 박해 士林의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그는 十孝文의 후손으로 十孝公에 清原의 菊溪書院에 부되었다.

또한 平川 卡勇은 十三世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시체를 둘째 친부는 十尚東도 전병까지 감을 내려졌다.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경전에도 해단길에 올랐다. 그의 季行이 조정에 알려져 旌에 모았던 그는 長派 提學 박해 士林의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그는 十孝文의 후손으로 十孝公에 清原의 菊溪書院에 부되었다.

또한 平川 卡應洙는 十二세의 아버지로 아버지의 시체를 둘째 친부는 十尚東도 전병까지 감을 내려졌다. 벼슬을 탐하지 않았고 경전에도 해단길에 올랐다. 그의 季行이 조정에 알려져 旌에 모았던 그는 長派 提學 박해 士林의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그는 十孝文의 후손으로 十孝公에 清原의 菊溪書院에 부되었다.



金剛金屬  
代表卞石圭



富平樹脂工業株式會社  
瑞光유리株式會社  
代表理事 卞相鳳



新村皮革商事  
代表書目  
學



新刊物



代表理事 卞文煥

# 祝創刊







[7] 潤澤人間共存の組織社会に尽力して下さい。宗親会は、人権と人格を尊重する社会をめざす。宗親会は、宗族の歴史と文化を発達させる。宗親会は、宗族の歴史と文化を発達させる。

● 1985年 人口分布調査による結果によると、全国の宗族の約1万7千戸が、主に京畿地域に居住しています。また、宗族の会員数は、約26%に達する。

## 釜山宗親會의 略史

● 本會는 十氏가 많아

● 本會는 十氏가 많아

● 本會는 十氏가 많아

● 本會는 十氏가 많아

● 1985年 人口分布調査による結果によると、全国の宗族の約1万7千戸が、主に京畿地域に居住しています。また、宗族の会員数は、約26%に達する。

涓涓世波와 함께生存を共有하면서 종족의 生存도 共有하면서 宗族의 歷史와 發達도 永遠無窮한 것이다.

● 1985年 人口分布調査による結果によると、全国の宗族の約1万7千戸が、主に京畿地域に居住しています。また、宗族の会員数は、約26%に達する。

## 서울·京畿地區 宗親會 발자취

## 在邱宗親會의 어제와 오늘

## 祝創刊

1月 25日

土曜日

[季刊]

1992年(檀紀 4325年)

1月 25日

土曜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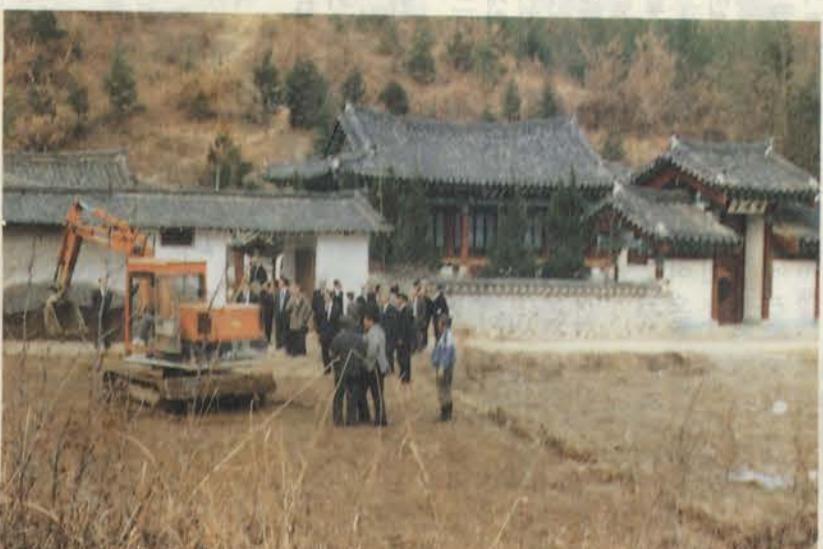
[季刊]



永慕齋 正門



永慕齋 1985年 5月 新築



永慕齋 앞 駐車場 정비작업 (1991. 12. 7)



주차장 적지작업을 차과하고

서울	02-267-8920, 963-3559
부산	051-556-3873, 244-3131
대구	053-52-4048, 53-5547
인천	032-883-4479, 424-5925
대전	042-256-6494
경기도	032-693-2090
강원도	0361-54-6629, 54-4969
충남북	0431-50-0030, 62-9386
경북	0546-54-8887
경남	0599-33-0025
전북	0653-84-0130
전남	0665-61-6043
마산	0551-46-1513
진주	0591-53-3696

이번 창간회는 - 말부  
인쇄하여 전국의 일족에게  
무료로 보급합니다.  
이 종로를 보신 즐친 여  
러분께서는 주위에 계신  
다른 일족에게로 연락하여  
주소록을 작성하시고 수령  
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보는 각 지역 종친회 담당  
로 보급하고 있으니 다음  
에 안내된 종친회를 찾으  
시고 또는 전화로 연락 주  
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솔루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보보급안내

● 錄影  
가 6 월 7 조 11 호에 사는 산화  
가 青松(一九五八年十月)  
一七日 生은 세살에 고아  
가 되어 番陽 卜氏라는 것  
밖에 모를다고 합니다. 이  
딱한 사정을 함께 알려  
립니다.  
다. 확인으로 하시기 바랍니

(6) 살을 열고 살촌十八  
萬과 함께 광복전 연변에  
가서 살았고 한동안 고향  
의 친척과 연락도 되었다  
고 합니다. 영고를 아시는  
분은 연락 하시어 이산 가족  
의 슬픔을 덜어주시기 바  
랍니다.

▲ **密陽 卡氏人** 卡成根  
**(한국에서)** 十八根이라고  
합의 두째 卡玉順은  
멀리 중국 길립성 연변조  
선족 자치주 연길시에서  
살다가 해방전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임분혹(임룡  
끌고 오빠는 十鍾旭 언  
나는 卡玉順입니다.  
아버지 卡八根은 어머  
니 일월을과 아들 卡鍾根

을 거명 血族의 정부  
악용하여 필요없는 물  
을 강매하는 生面不知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  
一族이 많았음을 이 紙  
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들이 주로 죄급학  
던 률풀이 학교인의  
보 姓氏의 고향  
별 봇·벼루함  
봇·도

사람을 찾습니다.

宗親會

卷之三

祝創刊



辯護士 卜辛圭



辯護士下衆救



辯護士 下得洙



辯護士下務實



東亞一昌  
常任法律顧問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 三街  
四一三八番地